

# 한국-베트남 희토류 공동개발 추진

## 희토류 광산 공동탐사 양해각서 체결 ... 알루미늄 60만톤 독점권도

한국과 베트남이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을 확대한다.

지식경제부는 12월21일 박영준 제2차관이 베트남을 방문해 한국-베트남 자원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양국의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베트남 북부 네안지역의 희토류 광산을 공동 탐사키로 의견을 모으고 한국 지질자원연구원과 베트남 지질자원연구소의 연구조사 협력양해각서(ROA: Research of Agreement)를 체결했다.

또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경동, 태광과워홀딩스로 구성된 한국 컨소시엄은 베트남 석탄광물공사와 바오다이 지역의 석탄광 개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태광과워홀딩스는 45억달러의 베트남 남딩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2012년 착공에 들어가 2016년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석유공사와 베트남 석유공사인 PetroVietnam은 베트남 및 제3국에서 신규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했고, 동양강철은 베트남 석탄광물공사와 총 4000억원을 투자해 베트남 현지에 알루미늄 제련공장을 설립한다.

베트남은 알루미늄 원료인 보크사이트 매장량이 세계 4위로, 동양강철은 내수의 4분의1에 해당하는 알루미늄 60만톤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게 됐다.

박영준 차관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 베트남의 우수한 노동력이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희토류 공동 조사와 친환경 광산개발, 원자력 발전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0/12/22>